

단말 쏘말

김 정 안(KIST)

21세기 과학과 기술계의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국내 재벌 그룹들은 2단계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 향후 고수익 이 보장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데 사운을 걸겠다고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참조: 6/8/01 한 국경제, 3면). 이와 관련된 기술산업분야는 소위 IT, BT, NT와 관련된 산업이란!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의 1등 상품 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여기에 환경과 관련된 ET 산업이 활성화만 된다면 장차 우리 나라 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1위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에 전념하는 우리들도 이들 분야와 연 판이 없다면 그야말로 생존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한 것 같다. 고로 자신의 전공에만 자승자박되지 말고 이 분야로의 발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또한, 정부의 연구 투자는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한다(과기부 연구개발국장 말씀). 월성 부른 나무에 물과 비료를 집중 공급함으로써 쓸모있는 나무로 키우겠다고 한다. 그러니, 최근 인구에 회자하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인재 양성에 힘써야한다고 야단 이다. 이런저런 문제를 망라해서 감안할 때 21세기 과학 기술계의 화두는 "융용 과학(Fusion Science)"이 아 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또한 고려 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의 선진 국가에서 선점하기 위하여 그럴사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또한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한정된 자원의 선택적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얻 고자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느 날 신문 지상에서 멋있는 글을 읽었다. 세계 제일의 GE사는 회장인 잭 웰치의 경영철학이 바뀌어 올해도 역시 최대 순익을 기록할 것이란다. 기존에 'GE는 1, 2등 상품이 아니면 포기한다'는 그 사람의 철학이 같은 회사 직원 들의 직언에 의해 5, 6년 전부터 바뀌어서 올해는 3, 4등 제품이 창출한 순익이 최고 수준으로서, 최고의 효 자 노릇을 했단다. 한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까? 물론 우리는 항상 최고를 지향해야 할 위치에 있 다지만, 3, 4등 하는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록 지금은 그 분야가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분야의 연구 결과와 융용될 때 보다 큰 가치있는 연구 결과가 창출 될 수 있음을 간과하 고 있거나 않은지... 그래서, 자기 분야만이 세계 최고이며, 나만이 세계 최고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뒤돌아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에 칭찬과 보답이 함께 하는(비록 3, 4등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세계 초일류주의 신봉사 상이 마치 황새 걸음 따라가는 뱀새가 되는 형상이 되고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 기의 위치를 모르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